

도깨비 방망이

작가 AI도움받아 000 씀

작가프로필



안녕하세요. 마음으로 이야기를 짓는
동화책 작가입니다.
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고향 부안에서
나고 자라, 그 따뜻한 정서를 바탕으로
아이들의 꿈을 그립니다. 저는 무엇보다
높고 푸른 하늘이 펼쳐지는 가을을
가장 사랑합니다. 바쁜 일상 속에서도
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내어 향긋한
차 한 잔을 즐기는 여유를 소중히 여기
며, 그 평온함 속에서 얻은 영감으로 다
정한 이야기를 써 내려갑니다. 제 글이
누군가에게 작은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
다.

2026.7월 동화책 완성

안 향 구

AI랑 함께 하는 새로운 옛날이야기

"안녕!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,
함께 떠나볼까요?"

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전래동화에 'AI 시대'의 상상력을 더한 특별한 패러디 동화를 만들었습니다.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마음을 다독이는 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지혜니까요.

우리는 AI와 도란도란 소통하며 그림을 그리고, 부안의 고운 말씨로 이야기를 새롭게 엮었습니다. 토끼와 거북이가 다정하게 손잡고 디지털 세상을 달리는 등 상상력 가득한 패러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.

부안의 맑은 바람을 닮은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되길 바랍니다. 정성껏 빚어낸 'AI 시대 패러디 전래동화' 속으로 다 함께 떠나볼까요?



제1장: 뚝딱 마을의 수리공, 망치

깊은 숲속 뚝딱 마을에는 '작은 망치'가 살았어요. 키는 작지만 무엇이든 뚝딱 고쳐내는 소탈한 도깨비죠. 망치는 오늘도 고장 난 나무 장난감을 고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.



제2장: 숲속에서 만난 요술봉

어느 날, 망치는 숲에서 빛나는 막대기를 발견했어요. 그것은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라, 미래에서 온 인공지능 요술봉 '알록이'였어요. 망치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알록이를 살며시 만져보았답니다.



제3장: 심술쟁이 짱구의 등장

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도깨비가 있었어요. 바로 흑부리가 달린 심술쟁이 '짱구'였죠. 짱구는 욕심이 많아 망치가 가진 알록이름 빼앗을 공리를 시작했어요.



제4장: 알록이의 능력

망치가 "알록아, 내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줘!"라고 말하자, 알록이는 눈부신 빛을 내며 방을 순식간에 정리했어요. 알록이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척척 해내는 똑똑한 친구였어요.



제5장: 알록이를 가져간 짱구

망치가 잠든 사이, 짱구는 몰래 집으로 들어와 알록이를 훔쳐 달아났어요. 짱구는 알록이를 흔들며 소리쳤죠. "알록아! 이 세상의 모든 보물을 내 집 앞에 쏟아놓아라!"



제6장: 멈추지 않는 보물 폭포

알록이는 짱구의 명령대로 금은보화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. 하지만 보물은 너무 많아져서 짱구의 집을 덮치고 말았어요. 짱구는 보물 더미에 깔려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죠.



제7장: 도움을 요청하는 짱구

"살려줘! 망치야, 도와줘!" 짱구의 울음소리를 듣고 망치가 달려왔어요. 망치는 알록이가 잘못된 명령으로 폭주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.



제8장: 마음 착한 비단의 조언

그때, 선녀처럼 착한 마음을 가진 '비단'이가 나타났어요. "망치야, 알록이는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, 모두를 위해 쓰여야 해!" 비단의 말에 망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.



제9장: 위기 탈출과 새로운 규칙

망치는 알록이에게 명령했어요. "알록아, 보물은 원래 있던 숲으로 돌려보내고, 짱구가 다시는 욕심부리지 않도록 정직하게 도와줘!" 알록이는 순식간에 보물을 치우고 짱구를 구해주었어요.



기쁨 행복 나누기

제10장: 행복한 마을의 시작

짱구는 자신의 잘못을 빌었고, 망치와 비단이는 짱구를 용서했어요. 이제 알록이는 망치뿐만 아니라, 욕심을 버린 짱구와 착한 비단이를 도와 마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쓰이게 되었습니다.

